

Week 1: 어플 분석

UI 적인 측면

동영상 필요성	- 정신없고 소리 때문에 불편함 - 공간 많이 차지함 - 어플 홍보 영상, 어플을 다운받기 전에 봐야 효과적 - 어플 다운후 어플에서 재생되는데 불필요한 것 같음 - 영상을 빼고 글자 크기 + 아이콘 부각 - 광고 영상은 play store banner에 넣기
글자 & 색	- 글자 색깔이 너무 옅고 밝아서 읽기가 힘들 - 노인들이 읽기에 글자 크기가 작음 - 강조가 부족 - 대비를 더 확실하게 주거나 선명한 색 사용 - 불필요한 글자들 줄이기 - 최대한 간략한 제목과 설명 - Ex: 개인진료기록 → 기록, 자가건강관리 → 건강 홈화면 - 너무 다양한 색이 많다 - 너무 알록달록해서 눈에 안들어옴 - 그라디에이션 배경 → 정신없음 - 윤서현의 Health Check! → 갑자기 영어 개인 진료 기록 - 영상자료, 검사결과, 진료교육자료, 의무기록 → 글씨 색깔과 배경색 둘다 밝아서 보기힘듦 & 크기 작음 - 중복되는 글 - 개인진료 기록에 불필요한 설명들 반복, 상단과 하단에 같은 버튼이 두번씩 있는데 분류 기준 헷갈림 - 작은 글자들이 많아서 눈에 안들어옴 - 위에 디자인이랑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게 나을것 같음 자가 건강 관리 - 수축기, 이완기 → 잘안보임 - 목록 추가 버튼에 아무것도 없음 (추가할 목록이 뜨지않음) - 한눈에 안들어오는 느낌 - 글씨가 너무 작고 배경색이랑 대비가 적어서 읽기 힘들 - 한페이지에 모든정보 말고 나눠서 하는건 어떨까 고민
버튼 중복 & 아이콘 모양	분류 기준 부정확 → 뭐가 뭔지 헷갈림 - 왼쪽 상단 Drawer 버튼 → 8개 - 하단 버튼 → 4개 Homepage 버튼 → 6개 - 중복되는 버튼 + 버튼 갯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림 - 개인진료, 자가 건강관리 버튼은 저 3곳에 다있음 - 어떻게 중요한건지 잘 모르겠음 - 중요한 기능은 크게 배치하는게 좋을것 같음 (크기가 다 같아서 앱의

	주기능이 뭔지 모르겠음) 아이콘 모양 - 아이콘들이 다 다르게 생겨서 통일성 X - 개인진료, 자가 건강관리 버튼 아이콘 모양이 3군데 다 다르게 생김
버튼 기능	마이페이지 ● ‘혈압 건강 관리’ 버튼 클릭하면 홈화면으로 이동 왼쪽 상단 Drawer button - 스와이프 가능하게 만들면 더 좋을것같음 - 접근성을 높이면 더 좋을것 같음 뒤로가기 버튼 - 안드로이드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때 앱이 종료됨 -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때 전 화면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음
전체적 Comment	주 연령층: 노인 →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렵고 정리가 안된 느낌 → 글자 크기/배경/색깔이 노인들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음 →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정리가 안된 느낌 → 어느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겠음, 기능들이 홈화면에 분류되어있는 기준을 몰라서 사용하기 어려움 → 이앱의 주 기능을 강조해서 보기쉽게 배치하는게 좋을 것 같음 한가지 의문: 노인들이 주 연령층이 맞는가?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자녀,,40~50대가 연령층? → 자녀/보호자의 폰과 연동되는 서비스? → 아니면 문자/알림톡 전송

Google Play Store Review

별 5개: 9 별 4개: 0개 별3개: 2개 별1개: 7개
갤럭시폴더 에서 실행이 안된다. (2020/1)
법정 의무교육 듣는데 1064 에러가 뜬다. (2022/9)
크게보기가 안되는데 그냥 보기엔 글씨 크기가 너무 작음. (2022/6)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비밀번호 찾기가 안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해 사용 못하는중. (2022/10)
한달동안 써보니 습관이 된다. 혈압관리 잘 할수 있을것같다. (2022/5)

혈당관리 및 복약관리가 된다. (2021/9)
처방전 보관하기 정말 편리하다. (2018/8)
모든 병원에서 전자 처방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2018/7)
종이 없이 약국에서 바로 약을 탈수있어서 좋다. (2018/5)
Takeaway: 전자 처방전, 혈당관리, 복약관리기능 유용

다른 어플들과 비교:

착한 의사 어플

- 배경이 깔끔해서 글씨가 잘들어옴
- 글자 색깔 진한, 대비 좋음
- 최대한 간략한 제목과 설명
 - 개인진료기록 → 기록, 자가건강관리 → 체크
- 눈에 들어오게 강조된 글씨 → 색깔 사용
- 제일 중요한 기능 강조되게 자리 배치/차지
- 검색 키워드
 - 홈화면 맨위 검색창
- 관련 의학뉴스/정보
- 개인정보 페이지에 비밀번호 입력
- 뒤로가기 버튼 편리

케어포미

- 내과 위주의 어플인가요?
 - 주기능 원치 잘보이게 강조/분류 기준 정확하게
- 자가건강 관리 페이지에 추가할 항목?
 - 다양한 질병 체크, 복용 약 관리, 운동
 -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코로나 관련?
- 만약 내과, 혈압혈당 체크 위주 어플이라면 그 부분을 강조
- 다른 어플과 차별점 ex)전자 처방전, 혈압, 혈당 → 홈화면에 더 강조?

Week 2: 콘텐츠 분석

UX 적인 측면

자가건강관리 페이지	혈압/혈당 ● 유저: 혈당/혈압 관리를 꾸준히 할만큼 건강이 안좋거나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색깔로 혈압 관리 현황 알려주기 (즉각반응) ○ 위험한 수치면 경고 색깔
------------	--

	○ 정상이면 초록색깔 ○ 경고 메시지 ■ 혈압이 좀 높습니다 ■ 정상 혈압입니다 알람 기능이 있는가? ● 혈당/혈압 체크해야될 시간 ● 약 먹어야될 시간 내가 환자 입장에서 수첩 대신하는 기능만 있으면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질것 같다 ● 뭔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거나 앱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사용하면서 재미가 생길 것 같다. Thought: 추가 항목에 복용 약 관리 넣는건 어떨까 →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하는 사람은 약 먹는 시간을 까먹을수도 있다 ● 약을 드셨습니까? → 알람 메시지 ● 약을 드셨을때는 예를 클릭해주세요 ● 복용 약 시간 관리/알림/체크 알레르기 ● 의사입장에서 약 처방하기 더 수월할 것 같다 ● 혈압/혈당이랑 같은 페이지에 있는게 맞는가? 아니면 복용 약 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에 넣기? 건강정보 ● 일일이 입력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 자동으로 건강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 환자들을 위한 운동관리 기능 추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 ● 오늘 총 걸은 거리 측정 ● 기본적인 운동 관련 기능 → 앱을 사용할 이유가 더 생김 전자처방전 기능 줄은것 같다 ● 의사 입장에서조차 처방전 종이를 항상 비치해둬야되는데 종이 값은 아낄수있다 ○ 병원 사용 권장 ● 환자 입장에서조차 처방전을 한곳에 모아놓을 수 있어서 편리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기능	● 혈당, 혈압 관리

	• 전자처방전 • 의사가 환자 정보를 볼수있는것 의사 입장에서는 어플을 사용하는게 편하고 유용할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어플을 사용하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뜨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것 같음 → 약 복용 시간 관리, 혈당/혈압 정상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것, 등 혈당/혈압 관리를 위해 도움되는 식단/운동도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음
해외 어플들:	Top rated telehealth app: https://apps.apple.com/us/app/teladoc/id656872607 - home delivery of pharmacy Diabetes Tracker -> connects with hardware https://apps.apple.com/us/app/mysugr-diabetes-tracker-log/id516509211

Week 3: 참고 자료 조사/인터뷰 질문 만들기

자료 조사 요약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3/01/28/tracking-for-health/	Data Survey on how ppl keep track Tracking Health Indicators % of adults who track the following... <table> <tr> <th>All adults (n=3,014)</th><th>%</th></tr> <tr> <td>Track weight, diet, or exercise routine</td><td>60</td></tr> <tr> <td>Track any other health indicators like blood pressure, sleep patterns, headaches, etc.</td><td>33</td></tr> <tr> <td>Track any health indicators for a loved one</td><td>12</td></tr> <tr> <td>Total who track any health indicator for themselves or others</td><td>69</td></tr> </table> Source: Pew Internet/CHCF Health Survey, August 7-September 6, 2012. N=3,014 adults ages 18+.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nglish and Spanish and on landline and cell phones. Margin of error is +/- 2.4 percentage points for results based on all adults. • People living in chronic conditions (만성질환)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track a health indicator or symptom	All adults (n=3,014)	%	Track weight, diet, or exercise routine	60	Track any other health indicators like blood pressure, sleep patterns, headaches, etc.	33	Track any health indicators for a loved one	12	Total who track any health indicator for themselves or others	69
All adults (n=3,014)	%										
Track weight, diet, or exercise routine	60										
Track any other health indicators like blood pressure, sleep patterns, headaches, etc.	33										
Track any health indicators for a loved one	12										
Total who track any health indicator for themselves or others	69										

- 19% of U.S. adults reporting no chronic conditions say they track health indicators or symptoms
- 40% of U.S. adults with 1 condition are trackers
- 62% of U.S. adults with 2+ conditions are trackers

Nearly half (45%) of U.S. adults: dealing with at least one chronic condition.

- Of those who are living with two or more conditions, 78% have high blood pressure(고혈압) and 45% have diabetes(당뇨) — two health conditions more effectively managed when people track their own data.

Tracking on paper, spreadsheet, mobile device - or just in their heads

- 49% keep track progress “in their heads”
- 34% track data on paper (notebook/journal)
- 21% use some sort of technology

조사결과:

- People with more serious health concerns take their tracking more seriously
- Half of all trackers update their records or notes only occasionally and most do not share the data with anyone else
 - Half of trackers (49%) update their records or notes only occasionally, when something comes up or changes;
 - half (46%) update on a regular basis.
 - Thirty-four percent of trackers say they share their records or notes with another person or group, either online or offline.
 - Of those, half (52%) share with a clinician.
 - Not surprisingly, trackers who do not take formal notes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say they update their records on a regular basis or to share their progress with someone else.

결론: People with more serious conditions have some kind of tracking journal

설문조사 출처:

Princeton Survey Research Associates International. Data Source from August 7 to September 6, 2012. Statistical results are weighted to correct known demographic discrepancies. The margin of sampling error for the complete set of weighted data is

	±2.4 percentage points. The results reported here come from a nationwide survey of 3,014 adul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landline (1,808) and cell phone (1,206, including 624 without a landline phone).
https://pdfs.semanticscholar.org/3155/05569c182b1b1fb05d2d37b2a7b93502c90d.pdf	“자가혈당측정(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자가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의 혈당조절에 관한 식사, 운동, 약물 등의 효과를 이해하게 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도구이다” ● 이에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자가관리방법으로 자가혈당측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혈당패턴관리(pattern management)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단계: 혈당 목표 설정하기 ● 3개월 후의 단기 혈당조절 목표 설정, 설정한 목표는 3개월 후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점검 2단계: 혈당 추세 파악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 혈당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3~7일간 집중적인 혈당측정이 필요하다. ● 당뇨수첩에는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혈당에 영향을 주는 식사량, 활동량, 약물요법, 특이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 혈당수치 그래프: 혈당 추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 식사량, 운동량, 인슐린 종류와 주사한 용량 입력 당뇨수첩 ● 날짜와 요일 기록 ● 혈당수치 기록 ● 약/인슐린 기록 ○ 약 복용 유무, 인슐린 주사시 주사시간, 인슐린 종류와 용량 기록 ● 식사 기록 ○ 식사량과 종류, 술을 마셨을시 몇잔 마셨는지 기록 ● 활동량 기록 ○ 어떤 종류의 운동을 몇시간 (예: 산책 30분) ● 특이사항 기록 ○ 감기, 설사, 생리,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3단계: 혈당 패턴 찾기 ● 1. 목표에서 벗어난 혈당 찾아내기 ● 2. 언제, 얼마나 자주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 3.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의 변동(variability) 살펴 보기 일반적으로 식후 혈당은 식사 전 혈당, 음식의 종류, 음식 내 탄수화물의 양, 식후 활동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혈당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과 운동량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4단계: 혈당 패턴의 영향 요인 평가 혈당수치와 혈당의 영향요인의 기록을 살펴보고, 목표범위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생활습관, 약물요법 등이 어떤 하였는지 영향요인 점검 혈당변화의 영향요인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평소의 일상생활과 다른 점 점검, 혈당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메모하였다가 병원 방문 시 문의 ●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았는지? ●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은 많았는지? ● 운동량이 부족하였는지? ● 평소보다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 몸이 아픈지? ● 약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정확히 하였는지? 5단계: 계획 행동으로 실천 혈당을 목표범위로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 - 식사를 얼마만큼, 언제 먹을 것인지? - 식사와 간식 시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먹을 것인지? - 활동량은 어떻게 늘린 것인지? - 식사를 얼마만큼, 언제 먹을 것인지? -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약물요법은 처방대로 복용할 것인지? Publication: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
Works Cited	Fox, Susannah, and Maeve Duggan. "Tracking for Health." <i>Pew Research Center: Internet, Science & Tech</i>, Pew Research Center, 14 Aug. 2020,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3/01/28/tracking-for-health/. 심 강희. "효과적인 자가관리방법: 혈당패턴관리 중심으로." J Korean Diabetes, 2016.
그 외 자료들	https://physician.or.kr/Down/PlazaBoard/%B4%E7%B4%A2-%C8%AF%C0%DA%BF%EB.pdf https://www.ekjm.org/journal/view.php?doi=10.3904/kjm.2020.95.4.217

Interview Rough Draft:

서베이 목적: 혈당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기록, 식단, 운동측면에서의 실생활

케어포미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어플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어플을 사용하시는 주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플의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혈압/혈당 기록과 더불어 식단과 운동도 기록하는 기능이 생기면 어떨것 같나요?
혈당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어떨것 같나요?
혈압/혈당을 기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당을 기록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혈당을 앱에 기록하실때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전자처방전 기능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플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케어포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

병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병원을 주로 방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혈압/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혈압/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기록 안하고 기억 ● 수첩/노트 ● 온라인 어플
혈압/혈당을 얼마나 자주 측정하고 계신가요?
혈압/혈당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혈압/혈당을 기록하고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혈압/혈당을 기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록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혈압/혈당 관리를 위해 무얼 하고 계신가요? ●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환자/의사 인터뷰 질문 최종본:

https://drive.google.com/file/d/1r_bPm7RcxNAZJ1VyRo2f1A5pmbmpQk9f/view?usp=sharing

Week 4: 인터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연세>

환자1: 6-70대(?)

환자2: 59

환자3: 76

환자4: 62

병원 방문 목적:

환자1: 혈압관리

환자2: 혈압약

환자3: 혈압약타다 먹고, 다리수술 때문이요. 혈압약 먹은건 오래됐어요 체중이 나가서 그렇게 이상은 없어요.

환자4: 아프니깐 치료받으려고 약때문예요.

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는지:

환자1: 한달에 한번, 혈압약을 한달에 한번 받아먹어요.

환자2: 거의 두달에 한번씩 방문해요.

환자3: 여기는 오래간만에 왔어요. 혈압약 먹는거는 한달에 한번씩가서 혈압약 타왔어요. 그전에는 다리가 아파서 10년 고생하고 2다리 수술하고 그후로는 병원을 자주 안다녀요.

환자4: 혈압 당뇨는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한꺼번에 짓는데 다른데가 아픈데가 있어가지고요.

의사와 소통 혹은 병원 방문시 불편한점:

환자1: 없었어요.

환자2: 딱히 없었어요.

환자3: 그런거는 아직은 없어요. 맨처음 혈압약 먹은게 50세때 먹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걸 ____병원 거기서 부터 먹었는데, 지금까지도요. 근데 약은 조금 늘려진거 같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골다공증 이런거 다 집어넣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하나가지고 시작하고 그랬어도 영양제 뭐 그런거 다 추가되어 다섯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게 조금..그래서 약을 먹어야되는구나 그렇고.. 가끔가다 소화안되고 그러면 여기 원장님

되러 오고, 담당 의사는 길병원 있는데 있으셨어요.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저씨가 속이 불편하다고 왔는데 얼마전에 척추 수술도 했었거든요. 이제 병원도 옮겨야되요 지금. 그렇게 몇십년씩 다니던곳을 옮겨야되니깐 조금 그럴더라고요.

환자4: 아뇨 그런게 딱히 없었어요.

의사와 병원의 의사소통을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환자1: 그런거 딱히 못느꼈어요. 예약도 편하게 했어요.

환자2: 잘모르겠어요.

환자3: 잘모르겠어요.

환자4: 딱히 없어요. 의사소통 잘되요.

전자 처방전에 대한 생각 (더 편리할 것 같으세요?):

환자1: 딱히 없어요. 집이 가까워서 동네 병원에 와요.

환자2: 그러면 좋죠. 그러면 제가 처방전을 여기서 받으면 지금 이사를 해서 논현동에 살거든요. 그러니깐 여기 오기 불편하면 그쪽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수도 있고요.

환자3: 아..그렇긴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서 해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내가 가고, 그래서 그걸 더 선호해요.

환자4: 글썄요..안해봐가지고요.

평소 혈압 혈당 관리:

환자1: 약먹고 운동도 해요. 산을 한번씩 왔다갔다. 집 바로 앞이 산이라 산을 자주 올라가요.

환자2: 집에서는 제가 못하고 병원에 오면 측정해요.

환자3: 나는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있어요.

환자4: 특별하게 하는건 없지만 잡곡밥 위주로 먹고, 살이 많이 찌서 소식하려고 하는데 요즘 무릎이 아파서 요즘에 한 한달동안 조금 운동을 못했어요. 원래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혈압 혈당을 얼마나 자주 측정하나요:

환자1: 병원에 오면 선생님이 측정해 주셔요.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와서 측정하고 약

타먹는데 혈압 좋다고 해요.

환자2: 측정은 제가 못하고 약타러 왔을때 다른 병원 갈때마다도 거기서 혈압 재보고 그래요.

환자3: 집에서요 요새 자주 안해요. 그냥 약먹고 그러죠. 혈당같은건 병원 갈때마다 한번씩 꼭 해줘요.

환자4: 한달에 한번정도 병원에 와서 해요. 집에 측정하는 기계는 따로 없어요.

혈압/혈당 기록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환자1: 집에서 따로 기록은 안하고 병원올때만 선생님한테 측정받아요. 약탈때마다 측정하면 혈압 좋다고 지금처럼만 유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운동도 그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환자2: 그건 집에서 하는거죠? 기계를 집에 따로 사야되는거 아닌가요? 기계가 없어요.

환자3: 기록은 지금은 안해요. 근데 예전에는 꼼꼼하게 했어요. 그냥 괜찮은거 같아서 지금은 안해요. 중요한 생각은 지금 먹는거 보다 더 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있어요. 약 알 수가. 좀 똥똥해서 그럴지 혈당은 괜찮아요. 식단이나 운동관리를 따로 기록하진 않는데 정해진 양 이상으로는 안먹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먹는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는.

환자4: 집에 기계가 없어서 따로 기록은 안해요.

혈압 혈당 기록하고 관리할 때 어려운점:

환자1: 따로 기록할 생각은 없어요. 나이도 많은데...

환자2: 기록이나 관리는 따로 안해요.

환자3: 어려운건 없어요. 집에 재는 기계는 있어요. 수첩에다가 종이에다가 써요. 우리 집 아저씨도 아픈거 쓰는 일지가 있어요. 나도 등하고 목디스크가 조금 와서 그걸 몇일날 뭐갔고, 물리치료 뭐 갔고, 이런걸 다 기록해요. 내가 조금 꼼꼼해요. 생각하는거 보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도 굉장히 그런건 꼼꼼하고 세심해요.

가계부같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1년에 12페이지씩 있어서 1권이 한 5년쓰는건데 그안에 등디스크 이런거 다 쓰는게 있어요. 거기에 꼼꼼히 해요 생각보다.

핸드폰 어플같은게 있으면 쓸 마음이 있나요?

그런거 모르는데, 뭐 좋다고 하면 찾아보긴 찾아보죠. 네이버로.

근데 나는 똥똥한거만 줄이면 되는데...운동을 센터 가서 하긴해요. 물속에서 아쿠아로빅 하는거 1주일에 3번씩 하러다녀요. 식단 관리는 잘할 수 있는데도 식탐이 있어서 어려워요. 모든거 다 좋아하는데 밀가루 이런걸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은 많이 안먹는데도 한달에 한번씩 먹고싶어. 그게 식탐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환자4: 기록이나 관리는 따로 안해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1. 일반 환자 관리 질문

만성질환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수기로 기록하거나 케어포미를 이용하여 기록함

환자들에게 건강관리 가이드를 할 때 어떤 방식? 불편한점은?

- 건강관리를 위하여 환자마다 개인적으로 모두 설명함
- 불편한점 :
 - 반복해서 설명해야되서 힘들.
 -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는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
 - → 시간과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음

환자들과의 소통에서 아쉬운점, 불편한점:

- 진료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대화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움.
- 혈압이나 혈당을 충분히 측정해서 오지 않는 환자가 많음

2. hDACS내 환자의 혈압, 혈당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알고 계신가요?

기능 알고 있음

3. 의사와의 소통을 위한 케어포미

어떤 기능이 도움이 되나요?

- 혈압, 혈당 자가 측정이 도움이 되고 알레르기도 도움이 됨
- 아직 예약과 제증명서류는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환자와 의사를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혈압/혈당 외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검사결과를 알려주거나 환자가 진료 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상태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그외 환자와의 인터뷰에서 느낀점:

- 병원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었다.
 - 의사와 병원 커뮤니케이션 관련 질문들에 최대한 긍정적인 대답들만 하려는 느낌
- 자신의 질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다.
 -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신다”, “병원 올때마다 검사하지만 항상 혈압/혈당 좋다고 하신다” 와 같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보이고 싶어하는 태도